

KOSDAQ | 반도체와반도체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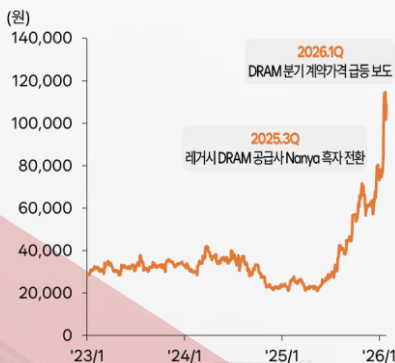
원익IPS (240810)

한국 반도체 장비 대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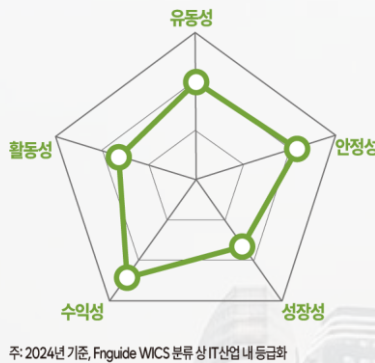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원익IPS는 2016년 원익홀딩스의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전지 장비 제조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PECVD(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ALD(원자층 증착), Diffusion Thermal System 등 미세공정에 특화된 증착 및 열처리 장비. 원자 단위로 초박막을 정밀하게 형성하는 ALD 기술을 기반으로 3D NAND, DRAM 등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정에서 경쟁력 보유
- 2025년 1~3분기 누적 매출 6,348억 원 중 제품(장비) 부문이 5,408억 원(85.2%)을 차지하며 핵심 수익원 역할을 담당. 그중에서 삼성전 자향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 원익IPS는 자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 R&D로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본사 및 R&D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 대응 역량을 강화
-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와 장기적으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규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을 통해 견고한 기술 파트너십을 유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에도 반도체 장비 공급 아울러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 하여 글로벌 영업망 강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설비투자 수혜로 원익IPS의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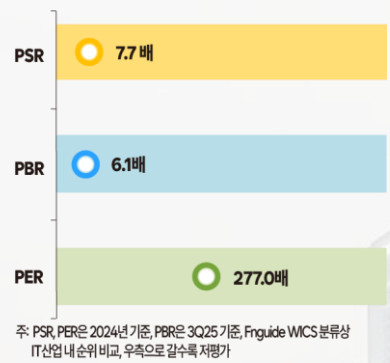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Analyst 김경민,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연구위원 clairekmm@kirs.or.kr
 RA 권지승 연구원 njswitmd32@kirs.or.kr

반도체와반도체장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 기반 수혜 구조 확보

원익IPS는 반도체 장비사이자 디스플레이 장비사로서 여타 장비사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와 장기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원익IPS는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가 설비투자(CapEx, Capital Expenditure)를 확대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힘. 이는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Micron Technology의 실적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Applied Materials나 Lam Research가 이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유사한 상황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전지 장비 공급, 반도체 장비가 실적 주도

주력 제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용 장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부문에서는 PECVD(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ALD(원자층 증착), Diffusion Thermal System(확산 열처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며, 특히 ALD는 원자 단위로 초박막을 정밀 형성하는 기술로 3D NAND, DRA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미세공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반도체 장비의 고객사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고객사로 확보. 한편,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Dry Etcher(건식 식각 장비), PECVD, LTPS Furnace(저온 폴리실리콘 열처리로), PI Curing(폴리이미드 경화 장비) 공급. 태양전지 부문에서는 RIE Etcher(반응성 이온 식각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 보유

전방산업의 우호적 설비투자 환경에 힘입어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 예상

자체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고객 수요 대응 역량을 강화. 핵심 경쟁력인 증착 및 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공정과 파운드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원익IPS의 2026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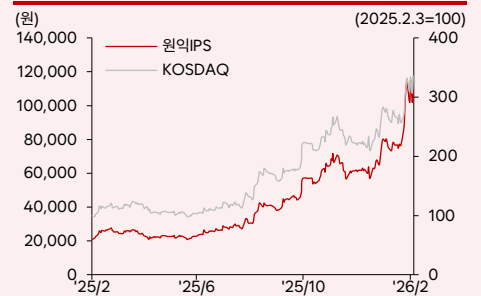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십억 원)	1,011	690	748	942	1,197
YoY(%)	-17.9	-31.8	8.4	25.9	27.0
영업이익(십억 원)	98	-18	11	88	140
OP 마진(%)	9.6	-2.6	1.4	9.3	11.7
지배주주순이익(십억 원)	89	-14	21	72	118
EPS(원)	1,822	-275	423	1,466	2,397
YoY(%)	-38.4	적전	흑전	246.7	63.5
PER(배)	13.6	N/A	52.9	46.3	45.4
PSR(배)	1.2	2.4	1.5	3.5	4.5
EV/EBITDA(배)	7.7	58.0	18.4	23.7	28.2
PBR(배)	1.4	1.9	1.2	3.5	5.0
ROE(%)	10.7	-1.6	2.4	7.8	11.6
배당수익률(%)	0.8	0.0	0.2	0.1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2/6)	108,800원
52주 최고가	114,700원
52주 최저가	20,950원
KOSDAQ (2/6)	108,077p
자본금	25십억원
시가총액	5,340십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4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7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577억원
외국인지분율	22.70%
주요주주	원익홀딩스 외 4인 32.98%
	삼성전자 외 1인 7.5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5.3	256.7	399.1
상대주가	19.7	165.2	241.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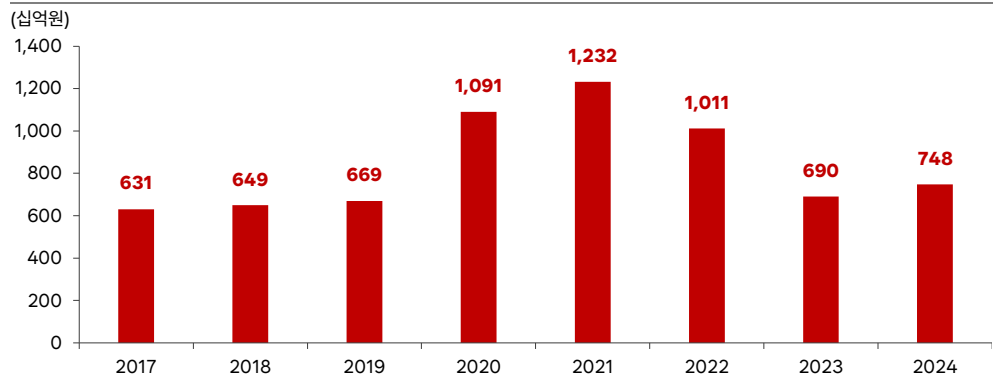
기업 개요

원익홀딩스와 원익IPS의 인적 분할로 설립된 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전문기업

원익IPS는 2016년 4월 1일 원익홀딩스의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전지 장비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법인 설립은 같은 해 4월 4일에 완료되었으며 원익IPS는 5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되었다. 양사 분할 후 원익홀딩스는 32.90%(16,148,572주)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기업 분할 이후 원익IPS는 2019년 2월 원익테라세미콘을 흡수 합병하며 열처리 장비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고, 이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영업망을 확대해왔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2020~2022년)에는 비대면 수요 확대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호황에 힘입어 연간 매출이 3년 연속 1조 원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2020년 1조 909억 원, 2021년 1조 2,323억 원, 2022년 1조 1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원익IPS 연간 매출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절연막이나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수인 장비
공급

원익IPS는 반도체 장비 부문에서 박막(얇은 막) 증착 공정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박막'이란 웨이퍼(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되는 매우 얇은 막을 의미하는데, 이는 반도체 칩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원익IPS의 주력 제품인 PE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장비는 이러한 박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장비다. PECVD는 플라즈마를 이용해 기판 위에 얇은 막을 증착하는 기술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절연막이나 보호막을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의 여러 층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절연막을 만들거나,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장비이다.

또한 원익IPS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ALD는 PECVD보다 한 단계 더 정밀한 기술로, 말 그대로 원자 단위로 초박막을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반도체 회로가 점점 미세화되면서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수준의 극도로 정밀한 막 두께 제어가 필요해졌는데, ALD는 이러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최신 로직 반도체나 고집적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몇 나노미터 두께의 막을 균

일하게 형성해야 하는데, 이는 ALD 기술 없이는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원익IPS는 열처리 장비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다양한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수직으로 메모리 셀을 100층 이상 쌓아 올리는 3D NAND 플래시 메모리와, 고성능 컴퓨팅과 AI 응용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DRAM의 핵심 공정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직으로 층을 쌓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원익IPS의 증착 장비는 이러한 3D 구조 형성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이나, SK하이닉스의 장비 국산화에도 성공하여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원익IPS의 NOA ALD, 금속 배선용 균일한 박막을 증착(형성)하는 장비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형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 공급**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원익IPS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여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OLED는 유기물 소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 기술로,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가볍게 제작할 수 있으며 선명한 화질과 빠른 응답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익IPS는 이러한 OLED 패널 제조를 위해 Dry Etcher(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는 화학 반응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장비다.

또한 PI Cure(폴리이미드 경화 장비)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I Cure는 폴리이미드(Polyimide)라는 고분자 소재로 만들어진 절연층을 형성하고 이를 고온에서 경화(굳히는 과정)시키는 장비인데, 이 절연층은 OLED 디스플레이의 여러 전극층 사이에서 전기적 간섭을 방지하고 디스플레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폴리이미드 소재는 유연성이 뛰어나 폴더블(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롤러블(말리는) 디스플레이 같은 플렉서블 OLED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PI Cure 장비는 이러한 소재를 균일하게 코팅하고 최적의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 정밀한 온도와 시간 제어로 경화 공정을 수행한다.

원익IPS의 OLED 디스플레이용 PI Cure(폴리이미드 경화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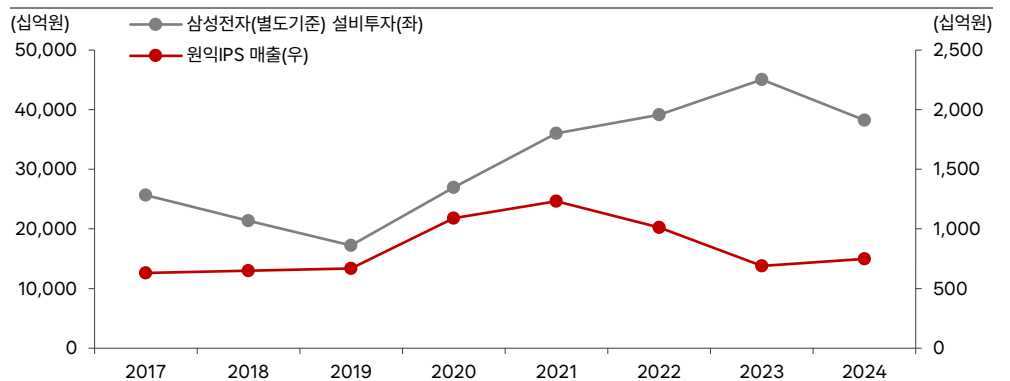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 기반 수혜 구조**

여타 반도체 장비사와 차별화되는 요소 보유

이처럼 원익IPS는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종합 장비 전문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익IPS가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구축해온 긴밀한 협력 관계다. 물론 원익IPS는 SK하이닉스도 고객사로 확보했지만, 그동안 삼성전자와 이어온 우호적 관계는 단순한 장비 공급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원익IPS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로 인해 원익IPS 실적은 삼성전자의 설비투자(CapEx, Capital Expenditure) 사이클과 높은 연동성을 보인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 팹(fab) 증설 시기에는 증착, 식각, 열처리 등 다양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2022년 삼성전자의 공격적 설비투자 확대 국면에서 원익IPS의 연간 매출이 3년 연속 1조 원을 상회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신규 팹 구축보다는 기존 장비 이설(re-location)이나 인프라 중심 투자를 진행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동행성이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2024년에는 반도체 사업에서 기존 장비 이설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진행되어 원익IPS처럼 신규 팹에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한 시기였다.

원익IPS 연간 매출과 삼성전자 (별도 기준) 설비투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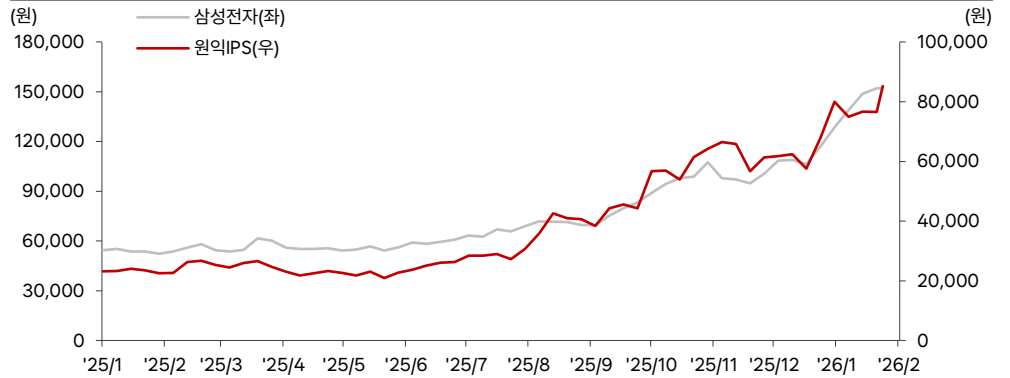


주: 삼성전자 연결 기준 설비투자가 아니라 별도 기준 설비투자를 참고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사업 중에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만 순수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임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의
우호적 파트너십 기반 수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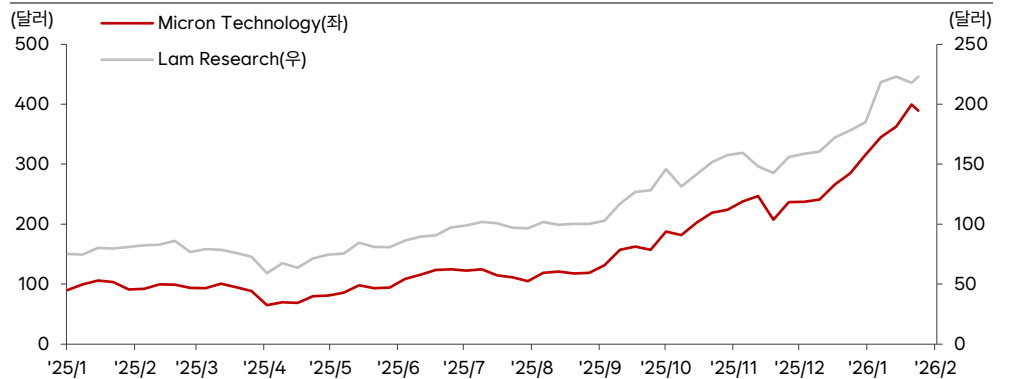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원익IPS가 동행하는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 미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Micron Technology의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이 주요 장비 공급사인 Applied Materials나 Lam Research의 실적 개선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황 호조기에는 Lam Research나 Applied Materials의 주가가 고객사인 Micron Technology의 주가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반도체 제조사 삼성전자 주가와 한국 반도체 장비사 원익IPS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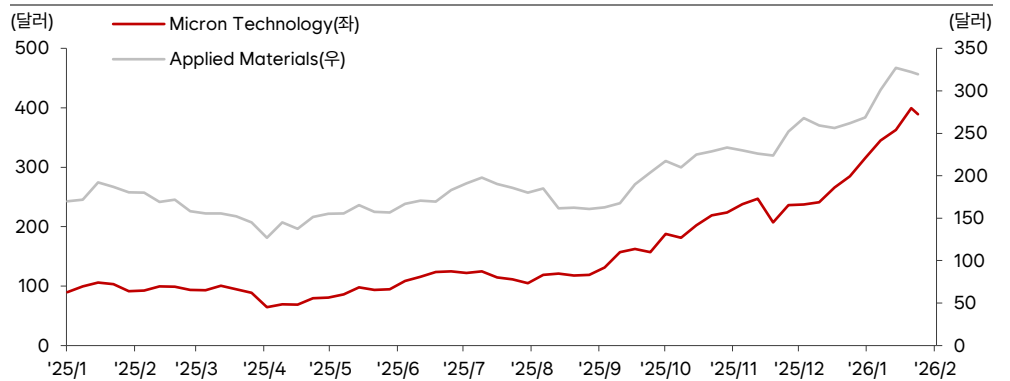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반도체 제조사 Micron 주가와 미국 반도체 장비사 Lam Research 주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반도체 제조사 Micron 주가와 미국 반도체 장비사 Applied Materials 주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14nm 공정 협력 시기부터
시작된 선제적 기술 개발과 축적**

원익IPS가 국내의 여타 반도체 장비사들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장비의 국산 화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와 14nm FinFET 공정 기술 협력을 진행하던 2014~2015년 시기부터 원익IPS는 첨단 공정용 장비 개발과 공급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14nm 공정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로, 기존 평면 구조의 트랜지스터에서 3차원 FinFET 구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FinFET(Fin Field-Effect Transistor)은 트랜지스터의 채널을 지느러미(Fin) 모양의 입체 구조로 만들어 전력 효율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기술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은 원익IPS가 단순히 기존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차세대 기술 개발 단계부터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파운드리는 설계 전문 기업(Fabless)으로부터 위탁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사업 모델로,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러한 기술 축적과 경험은 원익IPS가 글로벌 장비사들과 경쟁하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3 전사 매출 중에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 비중이 높은 편

**제품(장비)과 상품·용역 매출 중에
장비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고,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

원익IPS의 2025년 1~3분기 누적 매출(제10기 3분기 기준)은 총 6,348억 원으로, 크게 제품(장비)과 상품·용역으로 구분된다. 제품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제조용 장비 판매로 구성되며, 매출액은 5,40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용역 부문은 장비 및 장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공급과 기술용역 등으로 구성되며, 매출액은 940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4.8%를 차지한다. 상품·용역은 기존 고객사에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품 매출 내에서는 PECVD, ALD, Diffusion Thermal System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익IPS가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고객사별 매출 구성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문별 매출 구성(별도 기준)

(단위: 십억 원)

구분	2025년 1~3분기	2024년	2023년
제품(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540.8	655.1	605.1
상품/용역(유지보수, 기술용역) 매출	94.0	93.2	85.2
합계	634.8	748.3	690.3

주: 제품 매출과 상품/용역 매출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은 별도 기준인데, 이를 합산한 별도 기준 전사 매출은 연결 기준 매출과 크게 다르지 않음
자료: 원익IPS,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역별 매출 구성(연결 기준)

(단위: 십억 원)

구분	2025년 1~3분기	2024년	2023년
국내	488.9	569.5	536.9
해외	145.9	178.7	153.5
합계	634.8	748.2	690.4

주: 지역별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발표되나, 이를 합산한 연결 기준 전사 매출은 별도 기준 전사 매출과 크게 다르지 않음
자료: 원익IPS,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대주주는 원익홀딩스로,
2025년 9월 30일 기준
16,148,572주(지분율
32.90%)를 보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원익IPS의 최대주주는 원익홀딩스로, 2025년 9월 30일 기준 16,148,572주(지분율 32.90%)를 보유하고 있다. 원익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형 지주회사로, 반도체 장비부문, 가스부문, 신사업부문, 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한다. 원익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원익(지분율 30.00%)이며, 원익의 최대주주는 유한회사 호라이즌(지분율 46.33%)이다. 원익IPS의 특수관계인(임원)으로는 이현덕(13,411주), 임창빈(16,000주), 조남성(5,000주), 박동건(900주), 박상준(7,000주) 등이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전체의 지분율은 32.98%다.

주주 구성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원익홀딩스	최대주주	16,148,572	32.90
이현덕	발행회사 임원	13,411	0.03
임창빈	계열회사 임원	16,000	0.03
조남성	계열회사 임원	5,000	0.01
박동건	발행회사 임원	900	0.00
박상준	발행회사 임원	7,000	0.01
		16,190,883	32.98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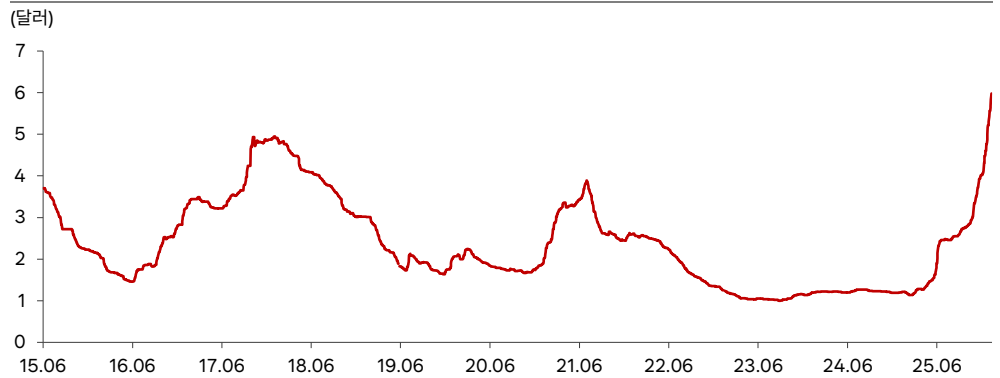
산업 현황

1 인공지능 수요 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제품의 업황도 개선되는 상황

전통적인 레거시(legacy) 반도체 수요도 동반 강세

2026년 기준, 반도체 산업 현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레거시(legacy) 반도체 수요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레거시 반도체란 최첨단 공정이 아닌 공정으로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를 지칭하며, 자동차, 산업 자동화, 생활가전, 사물인터넷 기기 등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 사용된다. 그동안 2024년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회복은 주로 생성형 AI와 데이터센터 수요에 기반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와 첨단 로직 반도체(GPU, ASIC)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5 하반기부터 레거시 반도체 수요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특정 제품군에 편중된 '불균형 성장'에서 벗어나 '전방위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DRAM 시장에서 레거시 제품에 해당하는 DDR4의 현물가격 추이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1월 기준 DDR4 4G (512M*8) 2400/2666 Mbps 현물가격은 2017년 퍼블릭 클라우드발 업황 정점 시기의 가격 수준을 넘어섰고, 이는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수요가 단순한 재고 보충 차원을 넘어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다.

DRAM 중에서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하는 DDR4 대표 제품의 현물가격



자료: 에프앤가이드,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범용 DRAM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레거시 반도체 수요 개선이 원익IPS와 같은 반도체 장비사의 실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익IPS의 매출과 주주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설비투자(CapEx) 집행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적 관점에서 레거시 반도체 수요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반도체 업황이 AI 단일 테마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시킨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어 온 'AI 수요 피크아웃' 우려는 반도체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레거시 반도체를 포함한 전방위 수요 개선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둘째, 전방 산업의 다변화된 수요 회복은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들의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 라인 증설 뿐만 아니라 범용 DRAM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대만의 DRAM 공급사 난야 테크놀로지

레거시 반도체 수요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대만의 DRAM 공급사 난야 테크놀로지(Nanya Technology)다. 난야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달리 HBM이나 DDR5 같은 최첨단 제품보다는 DDR4와 DDR3 같은 레거시 DRAM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제품 출하 중에 DDR5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출하 제품은 DDR4(70% 내외 비중으로 추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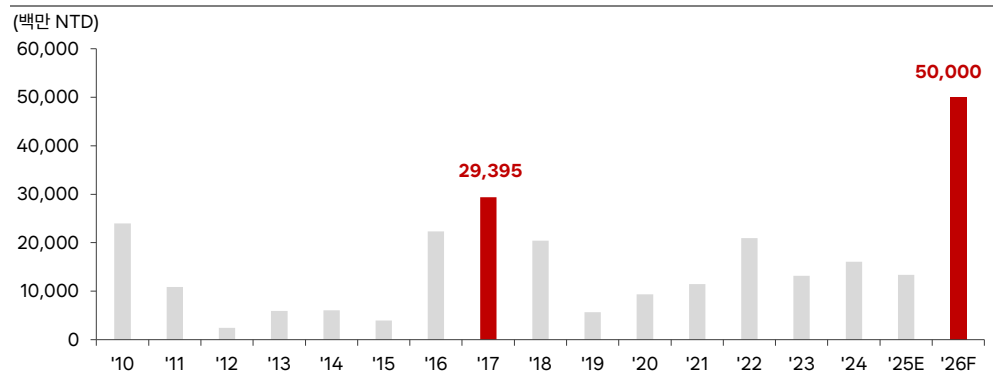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난야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부진했으나, 2025년 하반기부터 PC, 서버, 자동차,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DDR4 수요가 회복되면서 출하량과 평균판매가격(ASP, Average Selling Price)이 동반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동 분기 순이익은 NT\$110.8억으로 전 분기(NT\$15.6억) 대비 608.9%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NT\$15.7억 손실과 대비된다.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NT\$0.51에서 NT\$3.58로 흑자 전환했고,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은 전년 동기 -10.6%에서 49.0%로 개선됐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개선을 넘어, 반도체 수요가 최첨단 AI 칩에서 전통적인 범용 제품까지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산업적 시그널이다. 이러한 수요 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원익IPS 같은 반도체 장비 공급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난야 테크놀로지의 2026년 설비투자 규모는 과거 정점 수준인 2017년 294억 달러의 50% 이상 상회

레거시 반도체 업황 호전에 힘입어 난야 테크놀로지는 2026년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 설비투자 규모는 약 500억 대만 달러(약 2.3조 원)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연간 수십 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과거 설비투자 이력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의사결정이다. 난야 테크놀로지의 설비투자가 정점을 기록했던 2017년이 294억 대만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2026년 계획은 과거 최고치를 5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유지보수나 부분 증설이 아닌,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aggressive CapEx)로 해석할 수 있으며, 레거시 DRAM 시장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확신을 반영하는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설비투자 사이클 전환을 시사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Nanya Technology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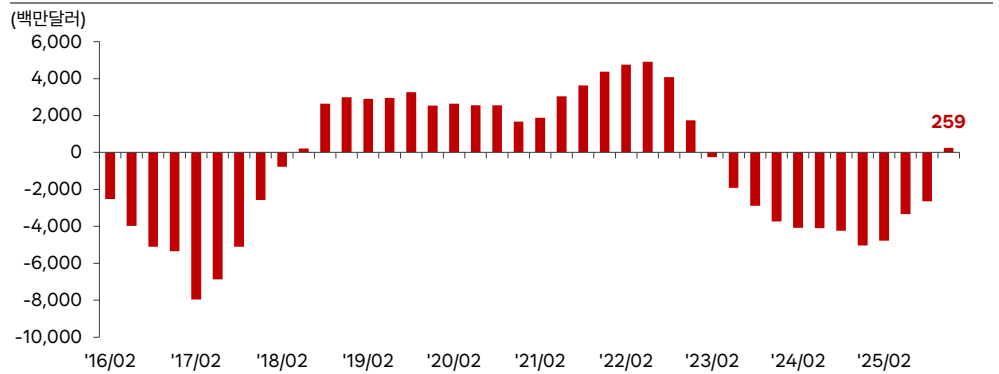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Nanya Technology,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남야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의
경우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이 플러스(+)로 전환**

반도체 전문 제조업체의 현금이 오랜만에 Net cash 상태로 바뀌어 긍정적

반도체 업황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긍정적 신호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의 재무구조가 오랜만에 순현금 (Net cash) 양(+)의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자본집약적 특성상 영업이익을 창출하더라도 막대한 설비투자로 인해 현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구조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은 수년간 순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왔으며, 이는 신규 투자나 전략적 프로젝트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업황 호전과 수익성 개선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Micron과 SK하이닉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여러 사업부에서 현금이 발생하는 다각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순수한 반도체 업황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반면 Micron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업황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들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icron의 Net cash(순현금)



플러스 전환은 단순한 일시적 개선이 아닌 업황 사이클의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을 시사

이러한 변화는 Net cash의 추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막대의 절대적 높이가 아직 높지 않더라도 매우 유의미한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Micron이든, SK하이닉스이든, 최근 분기 직전까지 최소 수년간 순현금이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플러스 전환은 단순한 일시적 개선이 아닌 업황 사이클의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을 시사한다. 순현금 양전환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명확하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필요한 경우 현재 시장 컨센서스보다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미뤄왔던 차세대 공정 개발,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추가적인 국산화 프로젝트,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순현금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반도체 제조사의 전략적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순현금 개선은 단순한 재무지표 변화를 넘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투자 확대와 생태계 강화의 신호탄

이러한 메모리 제조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은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의 로컬 반도체 장비사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우 원익IPS를 비롯한 국내 장비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즉, 전방 산업에서 주요 고객사가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국산 장비 채택 비율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한다면, 국내 장비 생태계 전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 장비사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공정 장비나 검사-측정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프로젝트가 가속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장비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순현금 개선은 단순한 재무지표 변화를 넘어,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투자 확대와 생태계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투자포인트

1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국내의 다양한 반도체 제조사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

원익IPS의 첫 번째 투자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설비투자 확대 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점이다. 2026년 현재 원익IPS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반도체 제조사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는 2010년대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DRAM, NAND Flash, 파운드리 사업부 전반에 걸쳐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왔고, 원익IPS가 이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특히 증착 공정 장비 분야에서 원익IPS는 삼성전자의 주요 양산 라인에 장비를 공급하며 긴밀한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반도체 제조에서 증착 공정이란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핵심 공정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새로운 증착 기술이 필요한데, 원익IPS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공정 개발
로드맵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기술을 진화시키는 전략적 파트너**

원익IPS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차세대 3D NAND 플래시 메모리에 필요한 선택적 식각 공정 기술 개발(현재 진행 중), 차세대 메모리용 신규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2024년 완료),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기술 개발(2024년 완료), 그리고 웨이퍼를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7축 웨이퍼 이동 장치 국산화(2022년 완료)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들로, 과거에는 대부분 해외 장비 업체에 의존했던 분야다. 원익IPS가 이러한 기술들을 국산화함으로써 삼성전자는 해외 장비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LD 장비는 나노미터 수준의 초정밀 박막 형성이 필요한 최첨단 메모리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로, 이 분야에서의 기술 확보는 원익IPS가 단순한 장비 공급사를 넘어 삼성전자의 차세대 공정 개발 로드맵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기술을 진화시키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연구개발 실적

진행 상태	과제
진행중	차세대 3D NAND 적용을 위한 isotropic dry selective removal 공정 개발
완료(2024년 4분기)	차세대 상용 메모리용 신규 ALD Precursor 개발
완료(2024년 4분기)	차세대 상용 메모리 신규 물질 증착을 위한 ALD 장비 개발
완료(2024년 4분기)	차세대 상용 메모리용 신소재 증착용 ALD 개발
완료(2024년 4분기)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완료(2023년 4분기)	서스펜션 플라즈마 용사용 산화이트룸 및 코팅기술개발
완료(2022년 4분기)	반도체 공정용 7축 웨이퍼 이동 장치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으로부터의 수혜, 메모리를 넘어선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원익IPS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 영역 모두에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

원익IPS의 두 번째 투자포인트이자 국내 다른 반도체 장비사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즉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점이다. 국내에 상장된 대부분의 반도체 전 공정 장비사들이 메모리 반도체(DRAM, NAND Flash) 설비투자 수혜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원익IPS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 영역 모두에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파운드리 공정용 장비 시장에서 원익IPS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모리 반도체가 대량생산 중심의 표준화된 제품인 반면, 파운드리는 고객별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로직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공정 기술이 요구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파운드리와 14나노미터 공정 기술 협력을 추진하던 시기부터 장비 국산화에 기여

원익IPS가 파운드리 분야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삼성전자가 글로벌파운드리(GlobalFoundries)와 14나노미터 공정 기술 협력을 추진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부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장비 국산화를 추진했고, 원익IPS는 증착 공정 장비를 중심으로 파운드리 라인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8나노미터 이하까지 공정 기술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원익IPS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 장비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원익IPS의 파운드리 관련 수주 금액은 10K(월간 1만 장의 웨이퍼 생산능력) 당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금액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나노미터 미만의 최첨단 공정에서는 증착 공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원익IPS의 장비 공급 국산화 비중과 단가 모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의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은 업계 1위인 TSMC와 비교하면 아직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Taylor) 팹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테일러 팹은 첨단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첨단 생산라인이며, 이러한 대규모 신규 팹 투자는 원익IPS에게 상당한 수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테일러 팹은 1단계 투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증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장기적으로 원익IPS의 파운드리 부문 매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결국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모두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은 원익IPS가 반도체 업황의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자 리스크 분산과 성장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한다.

주식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수혜주',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라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주목받는 경향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원익IPS는 지난 10여 년간 고객사 다변화(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해외 고객사)와 전방 산업의 디바이스 다변화(메모리, 비메모리)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 수혜주',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라는 키워드 중심으로만 주목받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삼성전자와의 관계가 원익IPS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은 분명하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 14나노미터 공정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장비 국산화에 기여해온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고객사 확대 노력 등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실제로 테일러 팹 같은 대형 파운드리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인 수주 성과가 나타나고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은 점차 원익IPS를 단순한 메모리 장비주를 넘어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CVD, ALD 등 다양한 증착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

**고객사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에
원스톱으로 대응**

원익IPS의 세 번째 투자포인트는 CVD, ALD 등 다양한 증착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증착(Deposition)은 웨이퍼 표면에 다양한 물질의 박막을 형성하는 핵심 공정이며, 공정 특성과 요구사항에 따라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기상증착), ALD(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증착), PVD(Physical Vapor Deposition, 물리기상증착) 등 여러 방식이 사용된다. 원익IPS는 이 중에서도 특히 CVD와 ALD 분야에서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증착 방식별로 세분화된 공정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CVD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착 속도로 두꺼운 막을 형성하는 데 적합한 반면, ALD는 원자 단위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이 요구되는 최첨단 공정에 필수적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증착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층 구조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원익IPS가 고객사의 다양한 기술적 요구에 원스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ALD 장비는 CVD 대비
대체적으로 단가가 높고 공정당
장비 대수도 많이 소요**

특히 ALD 장비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은 원익IPS의 미래 성장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다. 메모리 반도체가 3D NAND 300단 이상, DRAM이 1α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화되고,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으로 진화하면서, 기존 CVD 방식으로는 균일한 막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극미세 구조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미세 공정에서는 원자 한 층씩 정밀하게 쌓아올리는 ALD 기술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ALD 장비의 중요도와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과거 박막이 상대적으로 두꺼웠던 시절에는 CVD로 한 번에 증착하던 공정이, 박막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얇아지면서 이제는 ALD로 여러 번에 걸쳐 증착하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공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마치 식빵 위에 버터나 잼을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얇게 여러 겹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것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ALD 증착 횟수와 장비 가동 시간이 증가하면서, ALD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원익IPS는 차세대 메모리용 신규 ALD 장비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는 주요 고객사들의 차세대 공정 전환에 맞춰 적시에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ALD 장비는 CVD 대비 대체적으로 단가가 높고 공정당 장비 대수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ALD 시장 점유율 확대는 원익IPS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

증착장비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는 단순히 제품 라인업이 많다는 것을 넘어, 반도체 공정 전반에 걸친 기술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된다.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일 공정 장비만 우수한 공급사보다, 여러 공정 단계에서 일관된 품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장비 파트너가 더 가치 있다. 원익IPS는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구축해왔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완료한 반도체 공정용 드라이 펌프 계열 진공펌프 개발은, 증착 장비의 핵심 구성요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장비 성능 최적화와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 또한 차세대 3D NAND용 선택적 식각 공정 기술 개발처럼, 증착과 식각을 결합한 복합 공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정 최적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익IPS를 더욱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할 유인이 커진다. 결국 CVD, ALD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증착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원익IPS가 반도체 공정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며, 이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2024년 들어 부문별 매출액이 회복세

2024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82억 원, 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8.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3년은 극심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위축되었던 해였지만, 2024년 들어 부문별 매출액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력인 반도체 장비가 5,771억 원(77.1%)을 기록했고, 디스플레이 부문은 IT용 8세대 OLED 설비 투자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86.7% 증가한 1,711억 원(22.9%)을 달성했다. 매출 증가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와 디스플레이 패널 고객사의 설비 투자에 적극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은 매출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더불어 내실 중심 경영을 통해 판매비와관리비를 전년 대비 약 39.3억 원 절감했고, 연구개발비용도 전년 대비 83.9억원 절감하는 등 비용 효율화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2024년 실적 및 전년 대비 비교

(단위: 십억 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십억 원)	1,232	1,011	690	748
증가율(%)	130%	-17.9%	-31.8%	8.4%
사업부별 매출액				
반도체 장비	927	784	598	577
디스플레이 장비 등	305	227	92	171
영업이익(십억 원)	164	98	-18	11
영업이익률(%)	13.3	9.6	-2.6	1.4
증가율(%)	16.7	-40.6	적전	흑전

자료: 원익IPS,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1~3분기 실적 리뷰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원익IPS의 2025년 1~3분기(제10기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48억 원, 영업이익은 5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40.1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주력 사업인 반도체 장비가 5,091억 원(80.2%), 디스플레이가 1,257억 원(19.8%)을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3,666억 원에서 당기 5,09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것이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제품 매출이 5,408억 원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할 만큼 장비 공급이 활발했고 내수 매출 비중은 77.0%에 달했는데, 이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공정 업그레이드 투자와 디스플레이 패널 고객사의 설비 투자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수익성(영업이익) 측면에서 흑자 전환(전년 동기 -153억 원 → 당기 566억 원)이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매출총이익이 전년 동기 1,917억 원에서 당기 2,747억 원으로 약 830억 원 증가한 반면, 판매비와관리비는 약 70억 원(917억 원 → 987억 원), 경상연구개발비는 약 41억 원(1,153억 원 → 1,194억 원) 증가에 그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 1~3분기 실적

(단위: 십억 원, %)

구분	1Q25	2Q25	3Q25	1Q25~3Q25
매출액(십억 원)	124	242	268	635
증가율(%)	911%	56.34%	45.43%	40.03%
사업부별 매출액				
반도체 장비	94	218	197	509
디스플레이 장비 등	30	24	71	126
영업이익(십억 원)	-7	36	28	57
영업이익률(%)	-5.94%	15.05%	10.26%	8.92%
증가율(%)	적지	흑전	90.37%	흑전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실적 개선세 기록 및 2026년 매출 1조 원 상회 기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423억 원, 878억 원으로 전망

원익IPS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423억 원, 878억 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대비 매출 약 26% 증가, 영업이익 725% 증가하는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실적이 이미 매출 6,348억 원, 영업이익 566억 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2025년 하반기 설비투자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장비 납품과 매출 인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실적은 더욱 가파른 성장이 전망되는데, 매출은 적어도 1조 원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DRAM 생산라인에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 등 파운드리 사업부의 투자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4~2025년 반도체 업계 전반의 실적 개선으로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의 순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면서 설비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고객사 다변화 전략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 원익IPS의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25~2026년 실적 전망

(단위: 십억 원, %)

구분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십억 원)	690	748	942	1,197
증가율(%)	-31.8%	8.4%	25.9%	27.0%
사업부별 매출액				
반도체 장비	598	577	754	957
디스플레이 장비 등	92	171	188	239
영업이익(십억 원)	-18	11	88	140
영업이익률(%)	-2.6	1.4	9.3	11.7
증가율(%)	적전	흑전	725.1	59.7

자료: 원익IP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2026년 PER 밸류에이션 45.4배

글로벌 기업 대비

남부럽지 않은 수준

원익IPS의 2026년 실적 추정치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45.4배로, 증착 장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Applied Materials(미국)의 33.3배, ASML International(네덜란드)의 39.6배, Tokyo Electron(일본)의 31.3배 등 업계 최상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이는 원익IPS가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까지 장비 공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CVD와 ALD 등 다양한 증착 장비 포트폴리오를 통해 차세대 공정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2025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및 파운드리 설비투자 확대,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고객사 다변화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2026년 매출 1조 원 돌파와 영업이익의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과거 반도체 호황기에 연간 매출 1조 원을 몇 차례 상회한 경험이 있는 원익IPS가 2023년 업황 부진기를 지나 다시 1조 원 고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가시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되어 온 미세 공정 전환과 3D NAND의 고단화, HBM 등 첨단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인해 웨이퍼 10K당 필요한 장비 투자 금액이 과거 대비 분명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규모의 Capacity(생산능력) 증설이라도 원익IPS가 확보할 수 있는 수주 금액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의 질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반도체 장비사들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PER 밸류에이션에는 기술력 외에도 성장성, 수익성 개선 모멘텀, 주요 고객사와의 전략적 관계, 시장 내 희소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원익IPS의 경우 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 내에서 장비주를 사실상 대표하는 상장사라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반도체 장비 섹터 익스포저(Exposure)를 제공하는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면서 구조적인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KRW/USD/RMB/JPY 달러, 십억 원, 배)

지수 및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		
			2025F	2026F	2025F	2026F	2024	2025F	2026F
원익IPS	108,800	5,340	942	1,197	88	140	52.9	46.2	45.4
Applied Materials(미국)	323	374,785	41,352	42,626	12,451	12,811	21.1	34.6	33.3
ASM International(네덜란드)	684	58,169	5,418	6,008	1,571	1,708	40.2	45.6	39.6
NAURA Technology Group(중국)	472	72,101	8,288	10,547	1,557	2,210	37.0	48.2	35.8
Tokyo Electron(일본)	41,030	180,441	22,510	25,685	5,773	7,172	17.1	37.7	31.3
Lam Research(미국)	231	422,362	26,741	32,779	8,573	11,286	36.7	57.5	43.5

주: 원익IPS 실적은 한국R협의회 추정치, 그 외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 참고, 주가는 2월 6일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장기 성장 가시성과 기술적
해자(moat)가 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는 주된 요인

2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Lam Research의 경우 PER 밸류에이션이 43.5배로 가장 높은 편

원익IPS를 제외하고 살펴본다면, Lam Research의 경우 동종 업종에서 PER 밸류에이션이 43.5배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이는 식각(Etching) 장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착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공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am Research는 특히 DRAM과 3D NAND의 고단화, 그리고 파운더리의 첨단 공정 전환에서 핵심적인 식각 및 증착 솔루션을 제공하며, 반도체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장비 대수와 단가가 모두 증가하는 구조적 수혜를 받고 있다. 또한 Applied Materials, Tokyo Electron과 함께 반도체 장비 Big 3로 분류되며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ntel, Micron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사 모두와 긴밀한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객 다변화와 지역적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식각 장비 시장에서는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Applied Materials나 Tokyo Electron 역시 Lam Research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m Research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Lam Research 주가도 올라간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파운더리와 로직 고객사로 부터의 매출 비중이 45% 수준으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icron Technology의 주가가 상승하거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설비투자 확대 소식이 나올 때마다 Lam Research는 대표적인 메모리 수혜주로 인식되며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시장 내 포지셔닝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첨단 로직 칩 생산 확대가 Lam Research의 핵심 장비 수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TSMC의 선단 공정 개발과 양산 준비 단계에서도 Lam Research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향후 3~5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장기 성장 가시성과 식각 장비 시장에서의 기술적 해자(moat), 그리고 메모리와 로직 양쪽 시장에서 균형잡힌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3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으로 국력 대결을 하고 있어 반도체 장비사의 프리미엄 유지 가능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부상

이처럼 반도체 장비사들의 PER 밸류에이션이 PER 30배를 상회하거나 40배를 넘어서는 밸류에이션 수준은 일반적인 제조업종에서는 유지되기 힘든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반도체 장비 산업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HBM,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등의 생산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셈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에 따라 경기 사이클을 겪는 것과 달리, 반도체 장비 산업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정부 정책과 지정학적 판단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대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결정했으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면서 자국 및 동맹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NAURA Technology Group, AMEC 등 자국 장비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역시 삼성전자, TSMC 등 자국 반도체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반도체 장비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국 정부들이 경기 침체기에도 반도체 제조 역량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요를 뒷받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수요 기반에 더해, 반도체 장비 산업은 극도로 높은 기술 진입장벽과 과점 시장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증착, 식각, 노광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노하우, 소재 기술, 정밀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며, 신규 진입자가 기존 선도 기업들을 따라잡기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소요된다. 실제로 노광 장비 시장은 ASML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증착 및 식각 장비 시장도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Tokyo Electron 등 소수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은 높은 수익성과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지며, 고객사인 반도체 제조사들도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급사와의 관계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장비사들은 지정학적 필수재로서의 구조적 수요, 높은 기술 진입장벽, 과점적 시장 구조가 결합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통 제조업 대비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리스크 요인

2025년 초반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익IPS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

1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른 관심과 무관심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

원익IPS에 대한 투자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른 극심한 주가 변동성이다. 반도체 업황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특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및 파운드리 라인에 대한 설비투자를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원익IPS는 마치 만인의 연인같은 주식으로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급격히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CapEx 계획 발표와 함께 원익IPS의 수주 잔고 증가와 매출 성장을 기대하며 주가를 선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실제로 2025년 초반부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익IPS 주가는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반도체 업황이 침체기로 접어들거나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계획이 지연될 경우 빠르게 소멸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23년에는 극심한 반도체 업황 침체로 주식시장에서 소외받기도

2 반도체 설비투자 지연 시 즉각적인 실적 타격과 투자 심리 악화

반도체 장비주의 특성상 원익IPS의 실적은 고객사의 설비투자 집행 타이밍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며,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수주 감소와 매출 인식 지연이라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삼성전자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부진이나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보수적으로 조정할 경우, 원익IPS의 분기 실적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극심한 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이 설비투자를 대폭 축소하면서 원익IPS는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시기 주가는 부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삼성전자 설비투자 사이클에 크게 영향받는 주가 변동성을 감내해야

3 사이클 타이밍 예측의 어려움과 장기 투자자의 인내심 요구

더욱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익IPS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한 타이밍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업황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매수한 투자자는 실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긴 횡보 구간을 견뎌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업황 침체기에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친 투자자는 회복기에 이미 상승한 주가를 쫓아가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원익IPS는 고객사 다변화(SK하이닉스, 해외 고객사)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메모리, 파운드리)을 통해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가시적인 매출 비중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설비투자 사이클에 크게 영향받는 주가 변동성을 감내해야 한다. 결국 원익IPS는 반도체 업황 상승기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동시에 업황 하락기에는 그만큼 가혹한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십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011	690	748	942	1,197
증가율(%)	-17.9	-31.8	8.4	25.9	27.0
매출원가	599	414	456	568	709
매출원가율(%)	59.2	60.0	61.0	60.3	59.2
매출총이익	412	276	292	375	487
매출이익률(%)	40.8	40.0	39.1	39.8	40.7
판매관리비	315	294	282	287	347
판매비율(%)	31.2	42.6	37.7	30.5	29.0
EBITDA	138	27	52	134	183
EBITDA 이익률(%)	13.7	3.9	7.0	14.2	15.3
증가율(%)	-31.6	-80.4	93.0	156.4	36.6
영업이익	98	-18	11	88	140
영업이익률(%)	9.6	-2.6	1.4	9.3	11.7
증가율(%)	-40.6	적전	흑전	725.1	59.7
영업외손익	22	-2	9	0	1
금융수익	10	8	6	7	8
금융비용	2	4	11	11	11
기타영업외손익	14	-5	14	4	4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2	-1	-2	-2	-2
세전계속사업이익	117	-21	17	86	139
증가율(%)	-38.0	적전	흑전	394.3	61.9
법인세비용	28	-7	-3	14	22
계속사업이익	89	-14	21	72	11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9	-14	21	72	118
당기순이익률(%)	8.8	-2.0	2.8	7.6	9.8
증가율(%)	-38.4	적전	흑전	246.7	63.5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89	-14	21	72	118

현금흐름표

(십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8	-12	78	52	72
당기순이익	89	-14	21	72	118
유형자산 상각비	34	38	39	43	40
무형자산 상각비	7	7	3	3	3
외환손익	2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3	-58	-10	-70	-92
기타	9	15	25	4	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1	-46	5	-34	-3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07	10	27	-4	-5
유형자산의 감소	11	0	1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70	-60	-21	-25	-23
기타	13	4	-2	-5	-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8	14	-3	-2	-2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1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4	-10	0	-2	-2
기타	-14	24	-3	-1	-1
기타현금흐름	-0	0	1	0	0
현금의증가(감소)	61	-44	81	17	38
기초현금	38	98	54	135	152
기말현금	98	54	135	152	189

재무상태표

(십억 원)	2022	2023	2024	2025F	2026F
유동자산	596	588	645	792	1,000
현금성자산	98	54	135	152	189
단기투자자산	57	53	12	14	15
매출채권	39	22	23	29	37
재고자산	327	341	338	425	540
기타유동자산	74	117	137	173	219
비유동자산	526	497	479	462	447
유형자산	368	354	334	316	299
무형자산	34	22	27	24	21
투자자산	38	32	35	39	44
기타비유동자산	86	89	83	83	83
자산총계	1,122	1,085	1,124	1,254	1,448
유동부채	249	210	229	288	366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35	33	34	43	54
기타유동부채	214	177	195	245	312
비유동부채	3	9	8	8	9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	9	8	8	9
부채총계	252	218	237	297	375
자배주주지분	870	867	887	957	1,072
자본금	25	25	25	25	25
자본잉여금	351	357	357	357	357
자본조정 등	-28	-10	-10	-10	-1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1	1	1
이익잉여금	521	494	515	584	699
자본총계	870	867	887	957	1,07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F	2026F
P/E(배)	13.6	N/A	52.9	46.3	45.4
P/B(배)	1.4	1.9	1.2	3.5	5.0
P/S(배)	1.2	2.4	1.5	3.5	4.5
EV/EBITDA(배)	7.7	58.0	18.4	23.7	28.2
배당수익률(%)	0.8	0.0	0.2	0.1	0.0
EPS(원)	1,822	-275	423	1,466	2,397
BPS(원)	17,719	17,658	18,080	19,497	21,844
SPS(원)	20,607	14,064	15,243	19,198	24,381
DPS(원)	200	0	50	50	50
수익성(%)					
ROE	10.7	-1.6	2.4	7.8	11.6
ROA	7.8	-1.2	1.9	6.1	8.7
ROIC	13.4	-2.8	1.9	10.9	16.0
안정성(%)					
유동비율	239.5	280.4	281.8	274.7	273.2
부채비율	29.0	25.2	26.7	31.0	35.0
순차입금비율	-17.5	-11.3	-15.7	-16.3	-18.1
이자보상배율	119.0	-37.4	27.6	226.7	327.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9	0.6	0.7	0.8	0.9
매출채권회전율	27.3	22.5	32.9	36.2	36.3
재고자산회전율	3.1	2.1	2.2	2.5	2.5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원익IPS	X	O	X

2026년 2월 2일 기준 투자경고종목 지정.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2.13	원익IPS-한국 반도체 장비 대표주
2025.02.10	원익IPS-메모리 반도체 전환 투자로 실적 개선 및 성장 예상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